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12.3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美,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접경지역 '여행금지' 경고 발령
 - 12.21 美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과 정치인 암살·폭격 등 현지 치안상황 우려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및 접경지역(크림반도, 도네츠크, 루한스크)에 4단계 '여행금지' 경고 발령
- 英, '여왕 암살' 예고 동영상 공개
 - 12.27 영국 언론은 얼굴을 가리고 석공을 든 인물이 변조된 목소리로 "여왕을 암살하겠다"고 언급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지난 25일 윈저城에 침입 후 체포된 남성*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
 - * 동인은 범행 직전 해당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 후 석공을 들고 윈저城에 침입

미주

- 美, 알카에다 '테러자금' 지원 혐의 외국인 3명 제재
 - 12.23 美 재무부는 테러자금 지원 등 알카에다를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브라질 거주 이집트인 2명과 레바논인 1명을 제재 명단에 등재, 이들이 소유 또는 관여한 자국 내 자산을 동결
 - * 관련자들은 '18년 브라질에서 가구 사업을 하며 수익금을 알카에다에 제공

아·태평양

- 경찰청, 유로폴 가입으로 국제 공조수사 능력 강화
 - 12.22 경찰청은 '유로폴(EU 법집행기관 협력기구)'과 실무약정*을 체결, EU 27개국은 물론 유로폴과 약정이 체결된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한 超국경범죄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
 - * 실무약정은 EU의 필요에 부합하고 역량을 갖춘 국가에 한해 이루어지며 한국은 비유럽국가 중 10번째로 체결

○ **홍콩, 반정부 세력 탄압 목적으로 '테러혐의' 남발**

- 12.21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당국이 지난해 6.30 국가보안법* 시행 이후 29명의 시민을 체포하였으며, 테러와 무관한 일반범죄에도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물론 12명은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보도
- * 테러, 국가분열 활동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홍콩시민이 反中활동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反정부 인사 소탕을 위한 법이라는 비난 초래

○ **아프간 시민, 동결된 해외자산 해제 요구 시위**

- 12.21 현지언론은 탈레반 再집권으로 美 정부가 동결시킨 아프간 해외자산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카불에서 발생하였으나, 미국은 제재 철회 시 탈레반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중이라고 보도
- * 지난 20일에는 40명이 넘는 美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「조 바이든」 대통령과 「재닛 옐런」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아프간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

중 동

○ **이라크, ISIS 공격으로 최근 11개월간 350여명 사망**

- 12.27 이라크 「자바르 야와르」 페슈메르가(Peshmerga)* 사무총장은 ISIS가 지난 11개월 동안 쿠르드 지역을 229차례 공격해 이라크軍과 페슈메르가 대원 356명이 사망하고 480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
- * '죽음에 맞서는 자'라는 뜻을 가진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의 군사조직

아프리카

○ **우간다, 수도 캄팔라 폭탄테러 용의자 15명 기소**

- 12.24 우간다 정부는 지난 10월(식당·버스, 2명 사망)과 11월(경찰서 입구, 4명 사망) 수도 캄팔라에서 발생한 2건의 자살폭탄테러* 관련 ISIS 연계 용의자 15명에 대해 폭발물 제조·조달 등 혐의로 기소
- * 사건 당시 우간다 반정부 단체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민주군사동맹(ADF)과 협력하고 있는 ISIS는 2건의 폭탄테러가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

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공항 연쇄 총격·폭탄 테러

- '85.12.27, 09:15경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 무장괴한 4명이 무차별 총격과 함께 수류탄 투척을 자행 (16명 사망·99명 부상)
 - * 경찰은 테러범 3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1명은 검거
- 같은 날 09:30경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서도 괴한 3명이 탑승수속차 대기 중인 승객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(2명 사망·39명 부상)
 - * 사법당국은 도주하는 테러범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검거
- 이와 관련해, 스페인 某 방송국은 '공격 발생 직후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'아부 니달 조직'(ANO)의 소행임을 주장하였다고 보도
 - *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(PLO)의 소행임을 주장하였으나, PLO는 부인
- 한편, 다빈치 공항에서 검거된 테러범은 이탈리아 법정으로부터 징역 30년형을 구형받고 복역하다 지난 '10.6월 조기 석방되어 현재 로마에 거주 중이며, 오스트리아 법원은 빈 공항 테러범 2명에게 종신형 선고

< 아부 니달 조직(Abu Nidal Organization) >

- (결성) '74년 「아부니달」 (Abu Nidal, 실명 : 사부리 알-반나) 이 「야세르 아라파트」가 이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(PLO)의 온건노선에 반발하면서 별도 결성한 조직으로, 이후 하마스, 이슬람 지하드와 더불어 팔레스타인 3대 과격단체로 급부상
- (주요활동) 아부니달은 중동,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지에서 90여차례의 테러공격을 자행해 900여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했으나, '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테러행위를 사실상 중지('02.8월 아부니달 사망)
 - * 한때, 서방권에서는 同명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지도자로 지목
- (주요테러) ('85.12월) 로마와 빈 공항 테러공격(사망 18명)
 ('86.9월) 이스탄불 유대교회당 총기 난사 사건(사망 22명)
 ('91.1월) 튀니스에서 PLO사령관 암살 ('94년) 요르단 고위 외교관 암살